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작업치료학과	이름	한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콜럼버스 Columbus, OH
파견대학	오하이오 주립대	파견기간	18.8~19.4
귀국여부	네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오하이오 주립대 (The Ohio State University)는 미국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을만큼 북쪽에 있어서 흐리고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추운 날씨입니다.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대학교로 규모와 시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의 단위가 큼니다. 백인들이 많은 지역이지만 중국 유학생들도 많습니다.</p> <p>체육관도 여러 개고 동아리의 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소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일 것 같습니다.</p>
2018-2학기 수업	<p>오하이오 주립대는 대부분 시험이 한 학기에 세 번씩 객관식으로 있습니다. Buckeye link(포털)에서 실시간으로 과제와 시험 점수, 평균 점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p> <p>저는 첫 학기에 심리학 과목을 전공 수업으로 들었고 전공 3 과목, 교양 3 과목 총 14 학점을 들었습니다.</p> <p><i>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3 학점</i></p> <p>대학원생이 하는 수업을 들었고 일주일에 수업이 세번 있는데 매 수업시간 전마다 퀴즈가 있었습니다. 매번 수업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수업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또는 다른 방향으로 배우고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서로 토론해서 수업시간 내에 본인의 (팀의) 생각을 써서 업로드하는 경우도 많아서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생각을 적기만 하면 되어서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시험은 총 세 번 객관식이었고 과제 배점이 큼니다.</p> <p><i>성격심리학 (Theories of personality) 3 학점</i></p>

교수님이 강의자료를 PPT 로 올려주시고 수업시간에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가끔 랜덤으로 종이에 간단한 퀴즈 답을 써서 제출하면서 출석을 체크하셨습니다. 시험은 총 세 번 객관식이었습니다.

긍정심리학 (Positive psychology) 3학점

모든 강의 PPT 자료를 업로드해주시고 매주 읽어야 하는 책의 범위가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면 학생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데 부담을 느낄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랜덤으로 출석을 부르거나 exit slip 을 제출하는 걸로 출석을 체크하십니다. 시험은 세 번, 주관식도 있긴 했습니다만 세 문제 정도였습니다. 정해진 책으로 독후감을 쓰면 가산점을 주십니다.

Communication in Society 3 학점

교양으로 들은 건데 딱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E-book (약 \$100)으로 책을 읽고 유튜브에 올려 주시는 강의를 읽고 매주 퀴즈와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는 점이 많이 부담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그냥 자신의 생각을 적는 거라 어렵지는 않지만 온라인 강의를 챙겨 듣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시험은 세 번 온라인이었습니다.

승마 (Horseback riding- Western style) 1 학점

말을 타고 돌보는 것까지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수업시간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맞는 시간대별로 사람을 묶어서 수업을 정합니다. 그런데 말을 타려면 승마장을 가서 그 전에 말을 준비시키야 해서 총 3 시간이나 소모되었습니다. 앞 뒤 수업을 잘 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0 을 내고 신청하고 카풀을 해서 가야하기도 합니다. 퀴즈가 두 번 있고 Pass or fail 입니다.

여성을 위한 호신술 (Self-defense for Women) 1 학점

강력히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고 신체적인 기술도 배우며 운동을 합니다. 격주로 글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협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업에서 배우는 신체기술은 어떻게 각종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차단하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신체부위를 정확히 공격하는 연습을 합니다.

<p>2019-1학기 수업</p>	<p>두 번째 학기 때 전공 4과목, 교양 2과목 총 16학점을 들었습니다.</p> <p><i>특수아동학 (Exceptional Children) 3학점</i></p> <p>특수교육 아동에 대한 수업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레벨 5 입니다. 그래서 석사박사학생들도 있고 그에 걸맞게 숙제 퀴즈도 매주 있습니다. 다음 시간을 예습하는 온라인 퀴즈가 매주 있고, Application 퀴즈라는 저번 수업 리뷰식으로 수업시간 내에 서술형으로 입력해서 내야 되는 퀴즈가 매주 있습니다. 게다가 Assignment 도 2 주에 한 번씩 있습니다. 다행히 시험은 한 번 온라인 대부분 객관식으로 있고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올려 주시는 노트 빈칸에 단어를 채우며 듣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중간중간 수업흐름을 따라가는지 체크를 하셔서 도움이 되고 현직종사자들이 대부분 들어서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설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신기했습니다.</p> <p><i>운동과학 (Introduction of Exercise Science) 3 학점</i></p> <p>교수님이 이 분야 사람들을 섭외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커리어스토리를 들려주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NASA 에서 일하고 나이키의 지원으로 올림픽 유니폼 제작하던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진로를 가진 사람들을 초빙하십니다. 유산소, 무산소 운동과 조금의 물리가 섞인 수업이고 이 교수님은 키토제닉 (Ketogenic) 랩실을 운영하셔서 연구결과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이지만 강의 PPT 를 다 올려 주시는데 출석, 과제 하나 없이 시험 세번 객관식으로만 학점을 주십니다.</p> <p><i>공중보건학 (Role of Behavioral Public Health) 3 학점</i></p> <p>일주일에 세 번 있는 수업으로 올려 주시는 노트 빈칸에 단어를 채우며 듣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미국 보건시스템에 대해 폭넓게 배웁니다. 매시간 리딩 과제가 여러 개 있고, 매주 assignment 가 있다. 그리고 한 번 만든 그룹으로 토론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출석을 체크하고 그룹과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시험은 세번 객관식입니다.</p> <p><i>뇌 과학 (Introduction to Behavioral Neuroscience) 3 학점</i></p> <p>신경 해부학과 비슷합니다. 교수님이 진도를 좀 많이 나가셔서 범위가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해부학과 기능 해부학을 듣고 가서 익숙한 용어가 많았지만 만약에 모르고 들으신다면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뒤쳐지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지만 교양으로 들으실 수 있는 수업은 아닙니다. 매주 퀴즈 아니면</p>
------------------------	--

	<p>assignment 있는 정도이고 수업은 세 번 객관식입니다. Exit slip 으로 가산점도 주십니다.</p> <p><i>포토샵 (Digital Image Manipulation) 3 학점</i></p> <p>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섞여 있는 수업이라 교양으로 듣기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과제는 없지만 수업시간에 다 만들어서 내야 하고 교수님이 무척 까다로우십니다. 학생들 작품을 같이 평가하는 시간이 있는데 발표를 해야지만 점수를 주시고 일주일에 세 번 수업인 데다가 출석도 철저하게 체크하십니다. 개인적으로 MS 에 익숙해서 Mac 에 적응하기가 초반에는 힘들었기도 하고 교수님도 포토샵을 아예 모르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트쇼에 작품도 출품해보고 전공자들과 대화해볼 수 있는 건 만족스러웠습니다.</p> <p><i>카페인 과학(Caffeine Science) 1 학점</i></p> <p>차와 커피를 위주로 배우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Assignment 랑 퀴즈 2 주에 한 번 있는 1 학점 수업이라 큰 부담은 없지만 격주여서 과제를 제출하는 날을 체크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Assignment 가 다도를 하는 영상을 찍는 등 조금 더 손이 가는 과제입니다. 참고로 다른 초콜릿 사이언스나 Beer & Wine 사이언스는 오프라인이어서 시식, 시음할 수 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오리엔테이션은 필수로 알고 있는데 이틀동안 진행됩니다. 가면 점심도 제공해줍니다. 교환친구(버디)도 매칭해주는데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IOA 부서에서 매주 교환학생 또는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영화관을 빌려서 무료 영화 상영도 합니다. 그리고 Korean snack hour 같이 각 나라 교환학생들끼리 요리를 해서 친구들과 다른 교환학생들끼리 함께 먹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미국인들과 외국인들을 추천으로 뽑아서 방학 때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워싱턴 D.C로 갔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VA로 갔었습니다. 담당자는 Caroline인데 이미 이 업무를 담당하신지 몇 년이 되신 분이라 능숙하시고 답장도 빠르시고 자세하십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	-----------

날씨	여름은 한국보다 덜 습하고 괜찮은데 겨울에 꽤 춥다고 해서 롱패딩을 가져가 잘 입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춥지도 않고 눈도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한파로 휴강을 한 적이 하루 있었습니다. 어둡게 흐리고 비가 많이 오는데 날씨타는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국음식을 먹고 오히려 밖에서 활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햇빛이 쨍쨍할 때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학교에서 사고가 있을 때 메일로 알려줍니다. 제가 있을 때 학교 근처에서 총기사고도 나고 사는 곳 주변에 도둑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콜럼버스가 생각보다 더 안전한 도시여서 직접적인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학교와 그 근처에 지나가다가 누를 수 있는 Emergency bell도 있고 safety ride라고 학교와 그 근처를 차로 데려다 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한 10시 이후로는 조심해서 다니시는 걸 바랍니다. 지나갈 때 돈을 달라고 물어보는 homeless는 꽤 많지만 누구에게나 물어봐서 주변 사람들은 익숙한 것 같습니다.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22세가 넘으면 대학원 기숙사에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gateway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15년 이후부터 기숙사 전원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살던 기숙사는 남쪽에 위치가 좋았고 새 건물이라 주방도 크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른 학부생들 기숙사는 많이 다르고 우리학교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input type="checkbox"/>) 학교식당 개별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p> <p>외부식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접 요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p> <p>대학원 기숙사는 Meal plan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를 주로 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주로 Kroger에서 장을 봤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새벽 2시까지 하지만 근처에 노숙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 걱정되시면 Target도 추천 드립니다. 두번째 학기부터는 학교 식당인 Scott에서 일할 때 그 식당에서 식사가 지원되어서 주로 학교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한 학기정도는 내내 먹을 만한데 주변 친구들은 많이 질린다고 해서 적당히 바꿔가면서 드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p>

교통	<p>수업은 거의 걸어 다녔는데 North campus 수업이 있을 때는 학교 순환버스나 1, 2번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OSU 어플 다운 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버스를 확인 가능합니다.</p> <p>Fee에 버스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증만 있으면 콜럼버스에 있는 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 급하거나 짐이 많으면 Uber나 Lift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60+86 만원	돌아오는 비행기는 다른 나라에서 출국한 점 참조.
Fees	\$1931.08 x2	보험료와 버스비를 합한 비용. 한학기마다 냈습니다.
보험료		
숙소	기숙사, 모든 비용포함 매달 \$980	방 2개 화장실 2개가 있고 주방과 거실이 있는 2인 기숙사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인터넷 비용, 세탁 비용 같은 부수 비용이 듭니다.
식비	대략 매달 \$300~\$350	일주일에 2~3번 외식 (약 \$12~14)
교통비		거의 안 들었습니다.
책값	매 학기 \$100정도.	
기타1	필수사항 (비자 비용+ 주사 비용)	
기타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학교 관련 팁을 중심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OSU는 개강 전 후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확인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먼저 개강 전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다 소개해주는 내용이니 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축구, 야구 게임을 무료로 보거나 콜럼버스 지역 탐방을 international leader라는 학생이 인솔하여 함께 가게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먼 곳은 버스를 대절하기도 합니다. 미리 신청해도 되고 waiting list에 입력해도 되고 노쇼가 많아서 직접 가서 기다려도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개강 후에도 involvement fair라는 동아리홍보, 신입생 환영회인 kick-off 등이 있습니다. 또 gym에서 매일 매시간 진행되는 무료 체육 단체 수업도 참가하는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Assignment 를 할 때 표절 검사기를 이용하거나 문법 확인을 하시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과제 내기 전에 학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미리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대학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과제만 열심히 해도 최소 C 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나 TA 에게 물어보는 시간도 있고 시험 전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취소나 강의실 변경이 메일로 주로 와서 메일함을 자주 확인하거나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교환학생 준비 중에서 가장 힘든 때는 아마 이메일 주고받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Immigration check-in 날짜와 시간을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의 수강신청, 기숙사 신청, 먼저 입사여부, 궁금한 점을 전부 이메일로 보내야 됩니다. 저는 이메일이 손에 익지도 않고 학교 계정조차 하나하나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번거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준비해서 가면 분명히 더 재밌고 예상치 못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1 회 무료로 학교까지 택시 픽업을 해줍니다. 담당학생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메일도 옵니다. 또 기숙사 입사 전에 도착한 경우 IFI 라는 단체에서 무료로 잠시 홈스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Thanksgiving day 에 저녁을 함께하는 이벤트와 같은 무료 이벤트를 참여하며 IFI 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국제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이곳저곳으로 많이 태워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기준 매주 수요일마다 Ohio union 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했고 목요일마다 노래방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게시판에 일정과 장소 관련 공지가 많이 붙어있으니 확인하시고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비도 아끼고 돈도 벌 겸 2 학기부터 학교 식당에 요리 보조로 일했습니다. J1 비자로

가능하고 신청하면 거의 다 뽑아줍니다. 일하면서 더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미국대학교를 다닐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적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OSU 에는 D-tix 라는 할인 판매 부서가 Ohio union 에 있습니다. 할인 영화 티켓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티켓을 판매합니다. Arts, Sports, Special 크게 세 항목으로 티켓을 판매하는데 Arts 는 각종 콘서트, 연극, 영화관,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Sports 는 아이스하키, 축구 관람권, Special 은 기프트 카드 할인 같은 것입니다. 각각 Lottery 라는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당첨이 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미국 대학교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아마존 프라임이 6 개월간 무료입니다. 배송비, 프라임 비디오가 무료이고 할인항목도 많습니다. 애플뮤직이나 스포티파이도 월 \$5.99 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1년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게 너무 많아서 이 페이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많은 경로로 큰 도움을 받아서 나누고자 이것저것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환학생 자체에 대해서 써보자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모두가 제일로 꼽는 '경험' 이 가장 남는 재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이벤트, 가서 만나는 사람들, 나누는 이야기들과 그들의 삶 모두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문화를 알게 되고 내 문화와 삶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 또한 그러합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싶거나 일상에 지쳤다면 더욱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힘들게 가게 된 케이스인데, 제 학과가 외국 학부에 없어서 비슷한 전공과목이 있는 학교가 미국에 있는 일부 학교들과 당시 교환학생 티오로 나오지 않았던 영국에 있는 학교 밖에 없었습니다. 지원하는 학교에 꼭 붙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는데 비슷한 전공과목을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학과 특성상 1학년 때 합격하지 않거나 그 몇 개 없는 전공과목들을 패스를 하지 못하면 추가학기를 거의 1년을 다녀야 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담감이 큰 상태였는데 원하던 시기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은 그냥 소소했습니다. 일어나서 학교 가고 놀고 집에 오는 평범한 교환학생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듯 달라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봤고 주방이 있어서 더욱더 독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걸어가서


장보고, 동네에서 조깅하고,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던 게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친구 사귀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은 크다 보니 학생들이 본가에 자주 안가서 주말마다 같이 놀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시간될 때마다 서로 찾아가서 영화보고 게임을 했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 친구들과 함께 들었던 동아리가 Ohio주 여성용품에 붙는 세금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생필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임에서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에서 3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작년 말에 법이 통과가 되어서 올해 6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저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어 주고, 교회 사람들 집에 초대받아서 멋진 식사를 먹고 삶에 대해 나눴던 기억들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생활을 좋아하는데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박물관과 미술관은 퀄리티가 매우 높았고 종류와 개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컬럼버스가 오하이오에서는 대도시여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유명가수 콘서트, 전시회 등을 예상치 못하게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던 티켓 가격과 웬만한 곳을 가는 버스 덕분에 원했던 공연을 대부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할 때마다 갔던 근교 여행과 시카고, 뉴욕, 미국 서부, 남미 여행도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아주 저렴하게 교회에서 친구들과 플로리다로 수련회를 갔었는데 바다에서 수영했던 것도 좋았지만 해변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려 로켓발사를 보게 된 것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밴드 멤버들과 연습하다가 배고파서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같이 콘서트에 가서 신나게 놀았던 것들도 생각나고,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놀이동산인 Cedar Point를 가게 된 것도 모두 다 넘치는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많은 것이 교환학생을 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평생 못해봤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웠던 점만 나열하면 항상 그랬을 것만 같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일정 관계 이상의 진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생각보다 더 다양했던 영어 표현 등. 그 중에 계속되었던 고민은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듣는 전공과목들이 저와 맞지 않는 분야가 대부분이어서 걱정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제 전공과 아예 일치하는 과목은 없었지만 첫번째 학기에 abnormal psy과 두번째 학기에 Exceptional Children이라는 과목을 들으며 다행히도 아동치료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둘 다 쉬운 과목은 아니었지만 방향을 잡게 해줘서 고마운 과목들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휴식과 충전을 할 수 있었던 1년이었습니다. 가서 만난 친구들과 가기 전부터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교수님과 학교 덕에 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신입생 환영회 Kick-off</p>	<p>Self-defense class에서 친해진 그룹</p>
	
<p>Maroon 5 콘서트 관람</p>	<p>샌프란시스코 구글 본사 방문.</p>



South oval에서 단체로 영화보기



플로리다 Kennedy space center 방문